JKPS 창간 50주년을 축하하며

DOI: 10.3938/PhiT.27.034

이 재 일

1968년 3월에 7편의 논문으로 제1권 제1호를 발간한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JKPS)가 올해로 창간 5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물리학회가 1952년에 창립되었으니 한국물리학회의 대표 영문학술지인 JKPS의 창간은 학회 창립 16년 만으로, 1961년에 창간한 한글 학술지 새물리 이후 7년 만에 이룩한 경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1968년 9월에는 11편의 논문과 1편의 수정편을 게재한 1권 2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렇게 1968년 한 해 동안 JKPS에 게재된 논문은 모두 18편에 114쪽이 됩니다. 2018년 올해 상반기에 발간된 권72의 12개호에 실린 논문은 모두 400여 편에 총 1630쪽에 이르니 지난 반백 년의 세월 동안 JKPS는 논문 양적면에서 60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JKPS 창간 당시의 권영대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JKPS의 초대 편집위원장이신 김정흠 교수님을 시작으로 역대 편집위원장님 및 편집위원들께서 애써 주신 노고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JKPS는 지난 50년의 연륜을 쌓으면서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관심도 증대되어 왔습니다. 작년 2017년에 외국 저자의 논문 수는 중국이 100편이 넘으며 미국과 일본은 50여 편이 됩니다. 이외에 이란이 30여 편, 인도가 20여 편, 그리고 베트남, 방글라데시, 태국, 터키에서 게재한 논문이 각기 10편이 넘습니다. 이는 JKPS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아시아에서도 주로 동남 아시아권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앞으로 JKPS가 명실상부한 국제적 학술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시아권을 넘어 미주와 유럽 각국의 저자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최근의 학술지에 대한 우수성 평가는 주로 SCI 저널인지 아닌지, SCI 저널 중에서도 그 임팩트팩터의 수치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JKPS의 임팩트팩터를 보면 처음 임팩트팩터가 산정

된 1997년의 0.481을 시작으로 (2003년에서 2007년까지 비정상적 상황에서의 임팩트팩터는 제외하고) 근 20년 동안 0.4 ~ 0.5 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임팩트팩터가 반드시 학술지의 질적 우수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회원들께서 JKPS의 임팩트팩터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중 한두 가지를 들자면 한국연구재단 등의 연구제안서 심사 시나 BK 사업 등의 선정이나 연차평가를 할 때 외국의 학술지뿐 아니라 JKPS 등 국내 학술지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관심있는 주제의 총설논문을 게재하여 인용을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JKPS 편집위원회에서는 올해 JKPS 발간 50주년을 맞아 6월호부터 일련의 총설논문을 게재하고 있고 이것이 임팩트팩터 증진에 어느 정도 기여하리라 기대해 봅니다. 여기에 더하여 임팩트팩터 증진을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 모두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원 여러분들 한분 한분이 JKPS의 임팩트팩터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JKPS의 국제적 인지도와 위상도 함께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기초과학연구원(IBS) 사업단이나 우수과학 및 공학 연구센터(SRC/ERC) 등 국가로부터 대형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 집단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JKPS의 창간 50주년을 거듭 축하하며, 지난 50년 동안 JKPS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역대 회장단 및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JKPS에 대한 회원 여러분들 모두의 관심과 사랑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저자약력

이재일 교수는 서울대학교 이학박사(1980)로서 1980년부터 현재까지 인하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미국 노스웨스턴대 방문학자, 인하대 기초과학연구소장, 연구처장, 자연과학대학장, 정석학술정보관장을 역임하였고 ICM(국제자성학회) 조직위원회 편집위원장(2012),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2011-2013), 한국자기학회 회장을 맡아왔다. 현재 한국물리학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jilee@inha.ac.kr)